

제36회 모의고사 정답

1	2	3	4	5	6	7	8	9	10
③	①	⑤	①	②	⑤	②	⑤	③	③
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④	①	②	②	④	④	④	⑤	④	④
21	22	23	24	25	26	27	28	29	30
④	③	④	②	②	①	①	②	④	⑤
31	32	33	34	35	36	37	38	39	40
④	④	③	③	⑤	③	①	②	①	⑤
41	42	43	44	45	46	47	48	49	50
④	③	①	②	①	③	④	⑤	①	③
51	52	53	54	55	56	57	58	59	60
②	⑤	①	②	⑤	④	⑤	④	④	①
61	62	63	64	65	66	67	68	69	70
①	②	④	①	⑤	③	②	⑤	②	③
71	72	73	74	75	76	77	78	79	80
②	④	②	①	③	②	④	④	④	③

1. ③ (P14)

① 내향성 증가 ② 조심성의 증가로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. ④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 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이 강하다. ⑤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저항한다.

2. ① (P20)

② 재가서비스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. ③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사회통합을 달성해야 한다. ④ 노인부양을 위해서는 공적·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. ⑤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찬 여가, 노후생활을 지원해야 한다.

3. ⑤ (P34)

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'65세 이상인 자' 또는 '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'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

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.

4. ① (P36)

②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및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④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1차 판정한다.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한다.

5. ② (P39)

수급자의 일상생활·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6. ⑤ (P48)

신체활동 지원	⑥ 목욕 도움 ⑩ 신체기능의 유지증진
일상생활 지원	① 취사 ② 세탁 ③ 청소 및 주변정돈 (※ 전업주부 역할)
개인활동 지원	① 외출 시 동행 ② 일상 업무 대행(※ 외부활동)
정서지원	① 말벗, 격려, 위로 ② 생활상담 ③ 의사소통 지원 (※ 말로 하는 것)
방문목욕	① 방문목욕 (※ 신체활동 지원의 ⑥ 목욕 도움과 구분)
기능회복 훈련	① 신체·인지향상프로그램 (※ 끝에 훈련과 치료)
치매관리 지원	① 행동변화 대처
응급	① 응급상황 대처
시설환경 관리	※ 정리와 관리
간호처치	① 관찰 및 측정 (※ 간호와 관련)
※ 제한된 업무 : 기능회복훈련, 시설환경관리, 간호 처치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	

7. ② (P60)

① 대상자 중심 ②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. ③ 시설장에게 보고한다. ④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가 우선이다. ⑤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,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.

8. ⑤ (P68)

9. ③ (P84)

① 유기 ② 자기방임 ④ 정서적 학대 ⑤ 경제적 학대

10. ③ (P89)

고용형태, 연령, 성별, 학력, 출신 지역 및 종교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.

11. ④ (P93)

언어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음란한 농담,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·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•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·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•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• 회식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함
육체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맞춤, 포옹,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• 가슴,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•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, 신체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김
시각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음란한 사진, 그림, 낙서,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•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, 사진, 그림을 보내는 행위 •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짐

12. ① (P92)

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.

13. ② (P97)

14. ② (P96)

① 상호 대등한 관계를 인식 ③ 대상자의 가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 ④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. ⑤ 원인조사가 아니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.

15. ④ (P98)

① 대상자에게 유아어, 명령어,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. ②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한다. ③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, 다음 방문 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. ⑤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.

16. ④ (P112)

〈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〉

-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.
- 무릎을 펴서 들어올린다.
- 물건 든 상태에서 방향 전환 시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.
-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 올린다.
-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올린다.



17. ④ (P119)

18. ⑤ (P126)

약물 대사 능력 저하 원인이 된다.

19. ④ (P137)

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보이거나 평소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을 때 가족과 상의하여 의료기관을 찾도록 해야 한다. 또한,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.

20. ④ (P143)

① 처방된 항결핵제는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 된다. 처방된 기간에 충실하

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결핵 완치의 유일한 방법이다. ② 항결핵제를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임의로 중단하면 약제 효과가 미치지 않은 균들이 살아남아 몸에서 활발하게 증식하게 되어 치료가 실패로 돌아가고 결핵이 더욱 악화한다. ⑤ 항결핵제는 여러 가지이고, 약의 양이 많고, 복용 기간이 비교적 길다. 처방된 항결핵제는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 된다.

21. ④ (P153)

- ① 인대 등이 탄력을 잃음에 따라 관절운동이 제한된다.
- ② 뼈의 질량 감소로 골격이 작아지고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다.
- ③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진다.
- ④⑤ 팔, 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지방은 증가하여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인다.

22. ③ (P162)

의의	•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 •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
원인	• 남성호르몬 감소, 여성호르몬 증가 • 비만, 고지방, 고콜레스테롤 음식섭취
증상	•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요도가 좁아져 소변줄기가 가늘어짐 •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음(잔뇨감) •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눔 • 배뇨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이 마렵고(빈뇨) 마려울 때 참기 힘들(긴박뇨) •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깬(야뇨)
치료 및 예방	•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 유지 • 음주는 전립선비대증을 악화시키므로 금주

23. ④ (P168)

의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•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서 주로 발생 • 작은 물집이 몸의 한쪽에 모여 전체적으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.
증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려움, 저림 또는 작열감(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과 화끈거림)을 포함한 발진 •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말단 부위의 수포, 통증, 작열감
치료 및 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증을 감소시키고, 수포의 건조 속도를 빠르게 한다. •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. •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지 않는다.

24. ② (P178)

- ① 공복혈당이 상승한다.
 ③ 근육질량이 감소되어 기초대사율이 감소된다. ④ 포도당 대사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쉽게 고혈당이 된다. ⑤ 인슐린의 분비가 느리고 분비량이 불충분하다.

25. ② (P185)

- ①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한다. ③ 친숙한 환경을 유지합니다. ④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. ⑤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 둔다.

26. ① (P196)

- ②⑤ 뇌졸중의 원인과 증상 ③ 도파민 분비 장애가 원인 ④ 치매의 지남력장애

27. ① (P199)

- ② 저장여식은 변비 유발 ③ 염분섭취를 줄인다. ④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. ⑤ 금기가 아니라면 물을 충분히 마신다.

28. ② (P202)

- ①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

는 옷을 입고 운동한다. ③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한다. ④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한다. ⑤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.

29. ④ (P207)

- ① 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,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한다.
 ②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고 그 다음 복용 시점에 2배로 복용하면 안 된다.
 ③ 철분제는 오렌지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된다.
 ⑤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.

30. ⑤ (P211)

31. ④ (P214)

대 상	50~64세	65세 이상
파상풍/ 디프테리아/ 백일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차 기본접종은 모두 • 이후 10년마다 파상풍, 디프테리아 추가접종 	
인플루엔자	매년 1회	
폐렴구균	위험군에 대해 1회~2회 접종	1회
대상포진	1회	1회

32. ④ (P417)

목 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 • 영양보호사의 활동 입증 • 영양보호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• 관리자와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 • 영양보호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 도움 • 가족과 정보공유를 통해 의사소통 원활 • 영양보호서비스의 표준화와 영양보호사의 책임성 제고
기록을 어려워하는 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글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 • 업무부담과 기록할 시간의 부족 •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

33. ③ (P437)

①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구두 보고한다. ② 보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,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 보고 한다. ④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보고를 먼저 하고, 나중에 서면보고로 보완할 수도 있다. ⑤ 구두로 먼저 보고한다.

34. ③ (P501)

①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, 물 공급,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.
② 19세 이상인 사람이면 작성할 수 있다.
④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진다.
⑤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.

35. ⑤ (P510)

① 눈이 감기지 않으면 솜이나 거즈를 적서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. ②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. ③ 의치를 그대로 돌지, 빼내어 의치용기에 보관할 것인지를 대상자의 가족에게 확인한다. ④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,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 혈액 정체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한다.

36. ③ (P225)

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사례가 들 수 있으므로 삼간다. ④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가 쉬워진다. ⑤ 식사 중에 말을 걸면 사례가 들 수 있다.

37. ① (P231)

②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 넣거나 빼면 안 된다. 시설장 등에게 바로 연락한다.

③ 너무 천천히 주입하는 경우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

④ 콧속에 분비물이 축적되기 쉬우므로 비위관 주변을 청결히 하고 윤활제를 바른다.

⑤ 경관영양 주입 후 대상자가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돕는다.

38. ② (P234)

39. ① (P238)

②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. ③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귀약 투여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. ④ 작은 솜을 15~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한다. ⑤ 후상방

40. ⑤ (P236)

①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. ②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. ③ 아랫눈꺼풀(하안검)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. ④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낸다.

41. ④ (P241)

①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. ②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노인이 잡을 수 있게 한다. ③ 건강한 손으로 ⑤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한다.

42. ③ (P245)

① 앞에서 뒤로 닦아 감염을 예방한다. ②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. ④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는다. 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섬유질도 적절히 섭취

취하며, 복부 마사지를 시행하여 장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게 한다.

43. ① (P248)

②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.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불안정하여 넘어질 수 있다. ③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방지매트를 깔아주어,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한다. ④ 이동 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고 환기한다. 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.

44. ② (P250)

① 기저귀의 바깥 면(깨끗한 부분)이 보이도록 말아 넣는다. ③ 피부의 발적, 상처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한다. ④ 배뇨,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. 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린다.

45. ① (P251)

② 소변주머니를 방광(아랫배)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. ③ ④ 소변이 찰 때마다 비우고 배출구를 잠근 후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. ⑤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다.

46. ③ (P259)

①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신다. ② 공복,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는 비교적 덜 추운 낮 시간대에 감는다. ④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 후 빗질하여 차분하게 정리한다. ⑤ 시설장 등에게 보고한다.

47. ④ (P261)

① 모발에 내용물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한다.

② ③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고,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. ⑤ 모발이 많이 더러워진 경우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사용한다.

48. ⑤ (P264)

① 목욕 담요를 마름모꼴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는다. ②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한다. ③ 회음부에 악취나, 염증, 분비물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. ④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변기를 빼낸 후 변기가 닿았던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는다. ⑤ 회음부나 음경을 닦을 때는 전용수건, 거즈나 솜을 사용해야 한다.

49. ① (P272)

침상 목욕	• 눈 주변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.
	• 눈 → 코 → 뺨 → 입 주위 → 이마 → 귀 → 목의 순서로 닦는다.
	• 양쪽 상지는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.
	• 양쪽 하지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.
	•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.
	• 복부는 배꼽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닦는다(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 도움).
	•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는다.
	• 목욕을 마친 다음에는 물을 마시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.

50. ③ (P277)

입 히 기	편마비	• 마비된 쪽 → 머리 → 건강한 쪽
	수액이 있을 때	㉠ 마비된 쪽 팔을 킠다.
		㉡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아눕게 하고 등 뒤쪽에 펼쳐져 있는 상의의 소매 부분을 계단식으로 접어놓는다.
		㉢ 바로누운 자세에서 수액을 건강한 쪽 소매 안에서 밖으로 빼서 건다.
		㉣ 건강한 쪽 팔을 끼우고 단추를 잠근다.

벗기 기 기	편마비	• 건강한 쪽 → 머리 → 마비된 쪽
	수액이 있을 때	㉠ 건강한 쪽팔(수액을 맞고 있는 팔)을 먼저 벗긴다. ㉡ 수액을 빼서 건강한 쪽 팔 소매의 밖에서 안으로 뺀다. ㉢ 수액을 건다. ㉣ 마비된 쪽 팔을 벗긴다.

51. ② ☞ (P280)

③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라도 엉덩이를 들어 올릴 수 있으면 두 다리를 모아(건강한 쪽 다리를 아래로) 무릎을 세우게 한다.

52. ⑤ ☞ (P283)

옆으로 눕히기	㉠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.
	㉡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.
	㉢ 눕히려는 쪽의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놓는다.
	㉣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.
	㉤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, 옆으로 돌려 눕힌다.
	㉥ 엉덩이를 움직여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.

53. ① ☞ (P289)

54. ② ☞ (P299)

휠체어 ↓ 자동차	㉠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스듬히 하여 놓는다.
	㉡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하고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.
	㉢ 건강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도록 한다.
	㉣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대상자의 엉덩이 또는 상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 깊숙하게 앉도록 한다.
	㉤ 대상자와 동승을 하는 경우 반드시 대상자 옆자리에 앉는다.

자동차 ↓ 휠체어	㉠ 휠체어를 안전하게 놓을 수 있도록 자동차를 주차한다.
	㉡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거나 조금 비스듬하게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.
	㉢ 자동차 문을 열고 자동차 안전벨트를 푼다.
	㉣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면서 대상자 다리부터 밖으로 내린다.
	㉤ 대상자의 양쪽 발이 충분히 바닥을 지지하게 하고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휠체어로 돌려 앉힌다.

55. ⑤ ☞ (P302)

보행기 점검	•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30° 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 둔부 높이로 조절 •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의 기능이 불안정한 쪽에 서서 돕는다. • 대상자 앞에 보행기를 두고, 바퀴를 잡고 그고 대상자가 일어서도록 돕는다.	
	양쪽 다리 모두 불편	• 보행기 → 한쪽 다리 → 나머지 다리
보행기 이동 순서	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	• 보행기와 약한 다리 함께 → 건강한 다리

56. ④ ☞ (P304)

계단 오를 때	㉠ 지팡이 ㉡ 건강한 다리 ㉢ 마비된 다리
계단(평지) 내려갈 때	㉠ 지팡이 ㉡ 마비된 다리 ㉢ 건강한 다리

57. ⑤ ☞ (P306)

탈수 증상 : 심한 갈증, 소변 횟수 감소, 피곤함과 무기력함, 정신의 혼동

58. ④ ☞ (P330)

59. ④ ☞ (P333)

옷에 불이 붙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, 얼굴에 화상을 막고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

얼굴(특히, 눈, 코, 입)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며 불을 끈다.

60. ① (P365)

② 바른 식사자세로 앉아 머리는 정면을 보고 턱은 몸쪽으로 약간 당긴다. ③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. ④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약 30분 정도 똑바로 앉는다. ⑤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는다.

61. ① (P386)

모섬유나 견섬유와 같이 흡습성이 큰 천연섬유는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해충의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보관할 때는 방충제를 넣어 둔다.

62. ② (P387)

③ 영양보호사는 승차 중에 대상자를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. ④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계획을 조정하고, 외출 후에는 대상자의 만족 정도를 확인한다. ⑤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이 아닌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시설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63. ④ (P442)

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렸을 때 그전에 없던 증상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메모하여 병원에 갈 때 가져가야 한다.

64. ① (P454)

② 온수기의 온도를 낮춘다. ③ 욕실의 문턱을 없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. ④ 세제는 치매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. ⑤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운다.

65. ⑤ (P456)

반복 질문이나 반복 행동에 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.

66. ③ (P458)

치매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,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.

67. ② (P459)

기본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과 안에 휴식시간과 가능하면 집 밖에서의 운동 포함 •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든다. • 혈관성 치매에 걸리면, 뇌순환 장애로 인해 수면각성 리듬이 깨져 수면장애 자주 발생
돕는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책과 같은 야외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면서 운동하도록 돕는다. •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→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. •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적정 실내온도 유지 •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영양보호사가 함께 동행한다.

68. ⑤ (P460)

돕는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 •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회 증상을 줄인다. •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코스를 만들어 둔다. •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으며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. • 낮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 소모를 하도록 한다. •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 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여준다. • 가족들과 다과 등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.
×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. •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. • 정신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.

69. ② (P462)

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.

70. ③ (P464)

치매 대상자는 인형, 애완동물, 익숙한 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돕는다.

71. ② (P465)

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준다.

기본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치매 대상자는 보통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음을 인식 • 부적절한 성적 행동관련 요인 관찰, 때때로 행동교정이 도움 •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 • 이상한 성행위가 약물복용 때문에 유발될 수 있음을 이해
돕는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→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. •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→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 • 성적 관심을 보일 경우 → 공공장소 출입을 삼가고, 방문객 제한

72. ④ (P403)

경청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. •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준다. • 시선을 맞추며,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는다. • 흥분하지 않고, 비판적 태도를 버린다. •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한다. • 단어 이외의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쓴다. •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.
-------	---

경청 방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한다. • 끊임없이 비교한다. •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. •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. •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슬쩍 넘어가며 대화의 본질을 회피한다.
-------	--

73. ② (P406)

주의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지 않는다. •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는 데 열중하여 말하는 사람의 본심을 전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. •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. •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. • 나-전달법으로 말하고 나서 다시 수용적 태도(경청)를 취한다.
방 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나를 주어로 말한다. •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그대로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한다. •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한다. •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. •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한다. • 전달한 말을 건넌 후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.

74. ① (P403)

75. ③ (P411)

① 시각적 장애 ②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. ④ ⑤ 지남력장애

노인성 난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인이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인다고 의심하는 경향 •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. •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. • 몸짓, 얼굴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. •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. •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입력은 크게,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. •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.
-----------	---

76. ② (P412)

언어 장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. •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. • 면담 시 앉아서 하고,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. • 말이 확실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린다. •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, 아니오 등으로 짧게 대답한다. • 실물, 그림판,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. • 잘 표현하였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한다.
----------	---

77. ④ (P516)

질식 증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한다. • 갑자기 기침을 하며, 괴로운 얼굴표정을 한다. •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. • 가슴 부위의 호흡운동이 보이지만,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다.
----------	---

78. ④ (P517)

경련 돕는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. • 몸에 꼭 끼는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, 편하게 호흡하게 한다. • 구토 등으로 숨을 쉴 수 없을 경우 →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. • 입에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.(이물질은 혀나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) • 대상자를 꼭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린다. •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지속 시, 119 및 시설장 보고
----------------	--

79. ④ (P522)

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. ②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부위를 노출한다. ③ 압박붕대를 너무 짙게 조이면 혈액순환에 방해된다. ⑤ 대상자의 혈액을 접촉하면 혈액 매개 감염성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을 낀 후 만진다.

80. ③ (P528)

① 100~120회/분의 속도 ② 복강 내 장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흉골의 가장 하단에 있는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 ④ 매 압박 시 압박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. ⑤ 압박: 이완의 시간비율이 50:50이 되게 한다. 단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.